

Samil PwC PE Newsletter



Contents

2025.06

1. PE 동향 및 PwC News	2p
2. Sector Insights	4p
3. Consulting 서비스 소개	8p
4. Deal Pipeline	11p

1. PE 동향 및 PwC News

새 정권의 정책 방향이 M&A 시장에 미칠 가능성으로 인해 대선 일정 이후로 연기되었던 DIG 에어가스, SK 실트론, 롯데카드, 테일러메이드, 효성의 '타이어스틸코드' 사업부, 그리고 애경산업 등 조 단위 M&A의 예비 입찰 및 실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내 분위기는 여전히 국내정권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와 신정부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딜 흐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거래 성사 확률은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산업별로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록적인 수출 성과를 내며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VIG가 미용 의료기기 업체 비올을 인수하고,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가 색조 ODM 전문 업체 씨앤씨인터네셔널을 인수하며, 베인캐피탈에서 매각 중인 클래시스 인수를 글로벌 PE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이 분야는 여전히 사모펀드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핫 섹터입니다.

인프라 관련 사모펀드 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맥쿼리가 보유한 DIG 에어가스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에 브룩필드, 스톤피크 등이 참여했으며, KKR과 브룩필드는 SK 에코플랜트의 환경 관리 자회사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가스를 제조 공급하는 SK 에어플러스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펠마는 최근 에퀴스로부터 폐기물 업체 CEK를 인수하는 등, 에너지 및 환경관련 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PwC News & Articles

인구구조, AI, 옴니채널 등이 바꾸는 기업의 부동산 전략 [삼일 이슈 프리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82757r>

삼일 PwC "외국 투자 장려하는 인니, 규제환경 이해해야 성공"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2309064551370>

삼일 PwC "AI 가 이끄는 내부통제 혁신, 기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62010493935168>

KODA, 삼일 PwC 와 'SOC1' 인증 심사 착수...전통 금융 수준 보안 강화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5817724>

삼일 PwC "K 반도체 경쟁력, AI 반도체 생태계서 찾아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0_0003206650

삼일 PwC "급성장하는 인도 금융시장, 국내 기업 진출 적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7_0003191061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최전선 선 홍성표·홍진오 파트너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6021057411400101796>

'포스트딜·컨설팅' 새 길 개척, 김용현·정지원 파트너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6101058480720103932&lcode=00&page=1&svccode=00>

'전문성'과 '신뢰'로 금융 자문 리드, 김기은·명본호 파트너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6091103037280102289>

'PE 시장을 설계하고 연결하다' 이정훈·성낙필 파트너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506041104041240107737>

"골프장 매각은 기업의 마지막 카드... 조용히 신속하게 팔아야"

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5/06/11/MDNMWPYDZZD7DI6ADEI7QF7NX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이회림 삼일 PwC 베트남 유턴센터장...'韓기업들 버팀목 된다' [fn 이사람]

<https://www.fnnews.com/news/202506231335421745>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에...배터리협회, K-배터리 생존전략 모색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5076100003?input=119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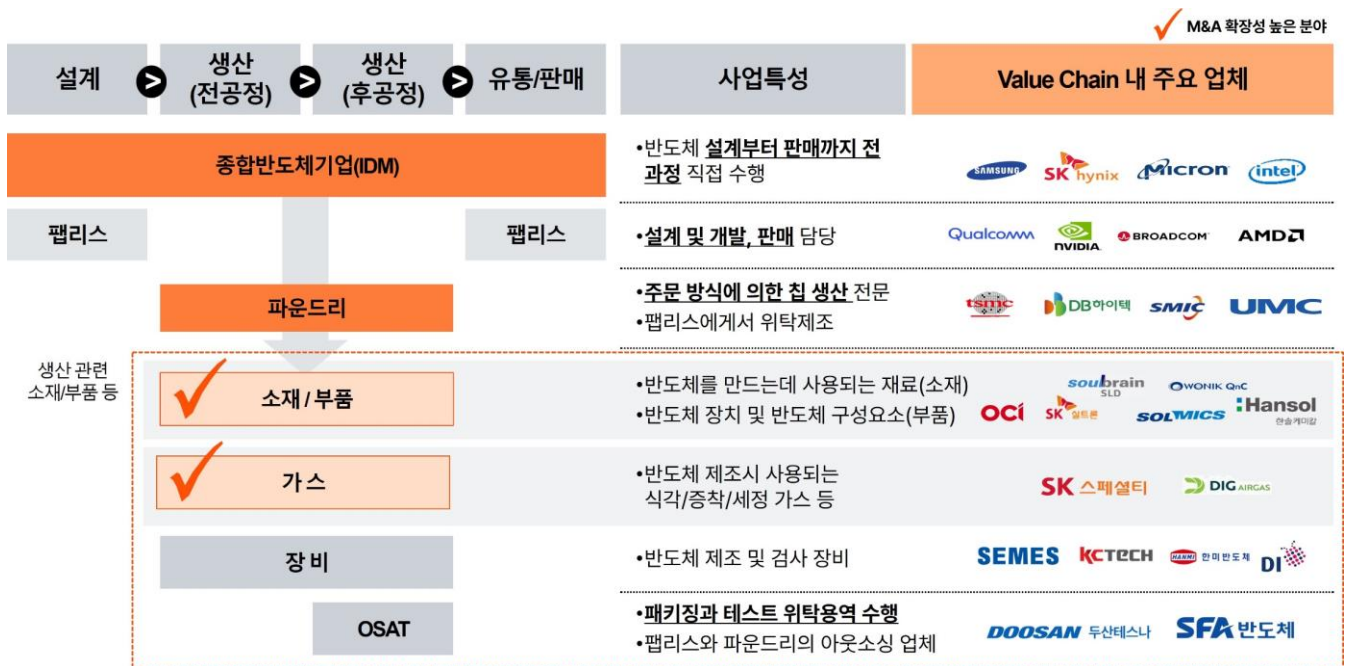
삼일 PwC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사전 준비로 대비해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2509525467057>

2. Sector Insights

반도체 Sector

반도체 Value-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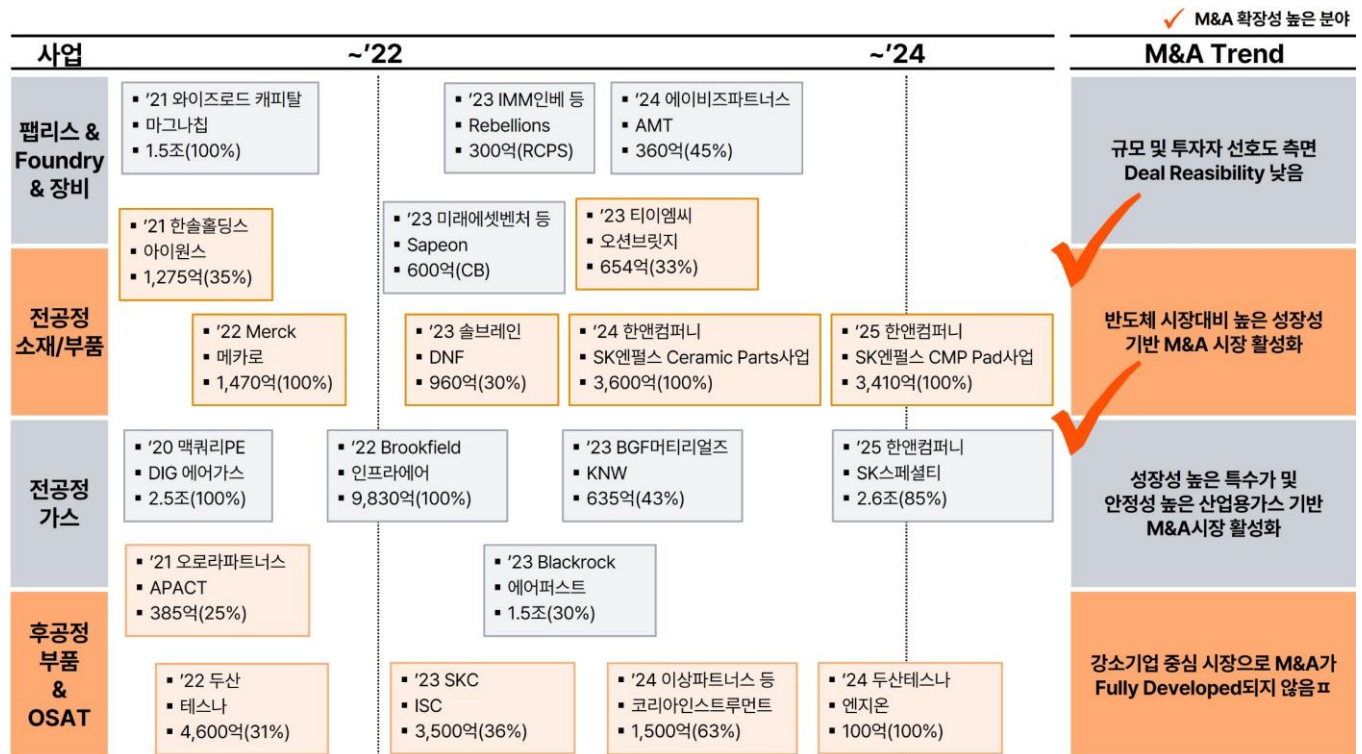
반도체의 밸류체인(Value-Chain)은 크게 설계, 전공정, 후공정, 판매의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밸류체인 내에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범위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체(Chipmaker)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종합반도체 기업(IDM):**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등은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 **팹리스(Fabless):** 퀄컴, 엔비디아 등은 설계에 특화되어 있으며, 생산은 외부에 위탁합니다.
- **파운드리(Foundry):**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등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제조합니다.

이러한 칩메이커를 중심으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을 제조 및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함께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밸류체인을 구성합니다.

최근 국내 M&A 시장에서는 **소재, 부품, 가스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높은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 대비 약 90%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최근에는 일시적인 Down-Turn 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M&A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M&A Trend



최근 5 개년간 반도체 밸류체인 각 영역에서 이루어진 M&A 거래를 살펴보면, 반도체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국내에 잘 구축된 밸류체인 생태계를 바탕으로 국내 잠재 매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전공정 소재, 부품, 가스** 부문에서는 유의미한 규모의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분야는 향후에도 높은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핵심 M&A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공정 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높은 성장성 및 견조한 수익성 기반, 전략적 투자자들은 기존 밸류체인 시너지 확장 목적의 투자가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SK 그룹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을 기반으로 일부 자회사 및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복수의 대상사업을 인수하며 반도체 소재·부품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전공정 가스 부문은 특수가스와 산업용 가스로 나뉘는데, 특수가스는 그 희소성과 성장성으로 인해 바이아웃(PE) 펀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산업용 가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덕분에 인프라 펀드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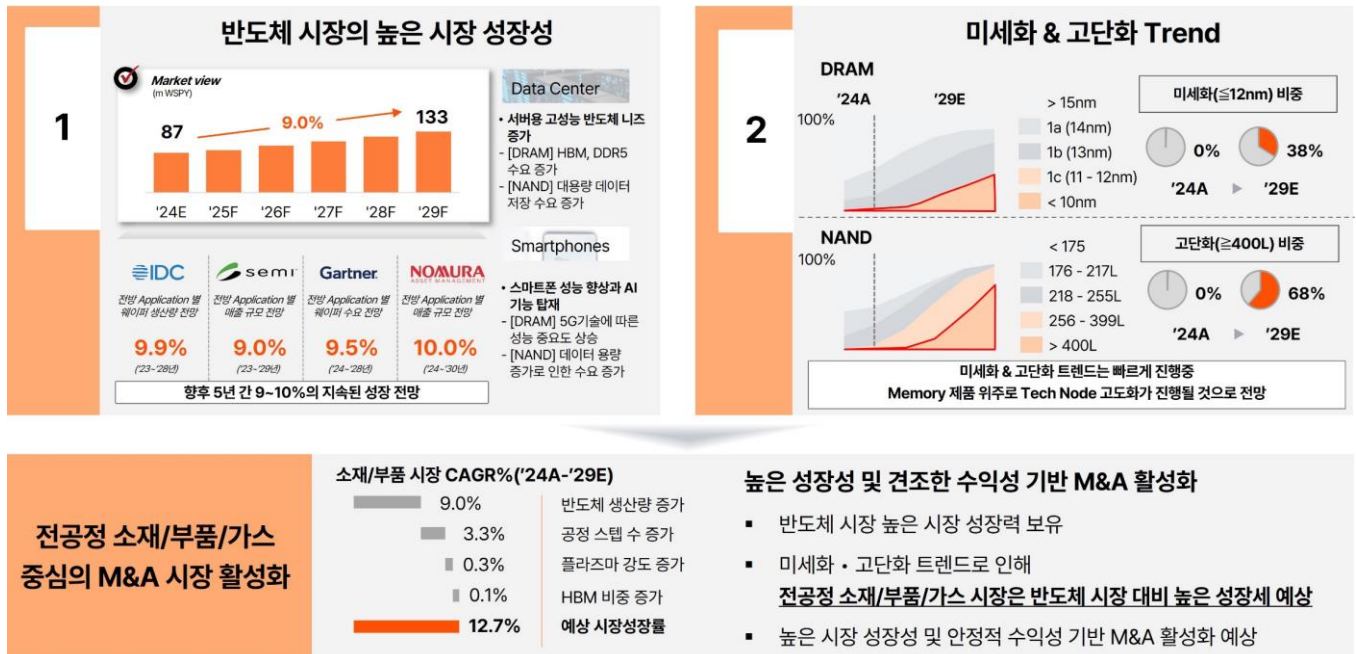
후공정 부품은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패키징 공정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후공정 부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후공정 부품 분야는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소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인해 기업 간 기술 및 고객 기반의 차이가 커서 인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제한적으로 M&A가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업계는 과거 OSAT 내 수직적 시스템 통합중심으로 M&A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전방 산업의 침체로 인해 M&A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반도체 장비 섹터**는 수주 기반 사업 모델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M&A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수주 불확실성과 높은 운전자본 소요, 계절성(Chipmaker들의 대규모 투자 및 생산능력 확장 시기에 따라 실적이 좌우), 그리고 높은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CAPEX) 부담 등으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장비 섹터의 M&A 활동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영역을 살펴보면, **팹리스 기업**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적자 상태인 경우가 많아 벤처캐피털(VC) 중심의 투자가 일반적이며,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형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매물화 가능성이 낮고 M&A 활동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반도체 M&A key Takea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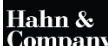






반도체 산업은 향후에도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의 증가가 산업 전반의 성장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자율주행, 고성능 서버 및 데이터센터 확장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시장 전반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성장성에 더해, 소재 및 부품 분야는 반도체 기술의 미세화 및 고단화 트렌드에 따라 더욱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고성능 소재와 정밀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방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EUV 공정, 고집적 패키징 등 첨단 기술의 상용화가 확대되면서 관련 소재·부품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국내 반도체 섹터 내 M&A 거래는 전공정 소재, 부품, 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 진화와 수요 확대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M&A 거래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니다.

반도체 Sector Center 주요 Deal Credentials

Category	Deal Summary	Seller – Deal 배경	Buyer – Deal 배경
대기업 → PE 매각 사례	SK 엔펠스 Ceramic Parts 사업 매각 (3,600 억, '23.10)	 SK Enpulse (Sel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전공정 내 필수 부품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 전공정 소재/부품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고성장 중인 후공정 분야로의 전환 니즈 존재 글로벌 1위 실리콘 러버 소켓 제조사 ISC 인수를 선제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SKC는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M&A 자원 마련 목적으로 매각 진행 	 Hahn & Company (Bu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대표 사모펀드로 SK 그룹과의 거래 경험 보유, 대기업 Carve-out 딜에 높은 관심 기간산업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첫 투자 진행 반도체 부품 분야는 딜 규모 측면에서 희소성이 높아, 대기업 Carve-out 자산으로서 투자 매력도 큼
	SK 엔펠스 CMP Pad 사업 매각 (3,410 억, '24.12)	 SK Enpulse (Sel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CMP Pad 부품은 반도체 부품 사업 중 고부가가치 제품 SK 그룹은 경영전략회의에서 Rebalancing 및 비핵심/중복 자산 정리를 핵심 과제로 설정 현금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CMP Pad 사업 매각 추진 	 Hahn & Company (Bu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ramic Parts 사업 인수 성공 이후, 보유 펀드의 반도체 중심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전략적 인수 진행 국내 No.1 전공정 부품 제조 역량과 Bolt-on 전략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딜 실행 가능성과 자산 매력도 높게 평가
	SK 스페셜티 지분 85% 매각 (2.7 조, '24.12)	 SK Inc. (Sel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생산 기업으로, 삼불화질소 및 육불화텅스텐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재무 건전성 강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 기조 아래 SK 스페셜티 매각 진행 	 Hahn & Company (Bu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대표 사모펀드로 SK 그룹과의 거래 경험 다수 보유 재무 건전성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방향을 첨단 기술 제조업으로 전환 기존 포트폴리오의 SK 하이닉스와의 사업적 시너지 보유
PE → SI 매각사례	Ace Equity의 Tesna 지분 39% 매각 (4,600 억, '22.03)	 TESNA (Sel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 영위 후공정 웨이퍼 테스트 분야 시장점유율 1위,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확보 에이스에쿼티파트너스 인수 3년 차로 Exit 니즈 존재 	 DOOSAN (Bu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발전) 및 산업기계 제조업 중심의 사업 운영 반도체 분야 첫 투자 대상으로 선정 파운드리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그룹 내 주력 사업으로 육성 계획중
	알케미스트 PE의 오션브릿지 지분 33% 매각 (653 억, '23.10)	 ICEAN BRIDGE (Sel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소재(Precursor) 사업 영위 → 박막 및 증착용 재료로, 반도체 소자 제조 시 절연막 및 금속 배선에 사용 알케미스트 PE 인수 4년 차로 Exit 니즈 존재 	 TEM C (Bu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 사업 영위 반도체 소재 사업 확대에 대한 니즈 존재 TEM C의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기대

3. Consulting 서비스 소개(EPC DD & CP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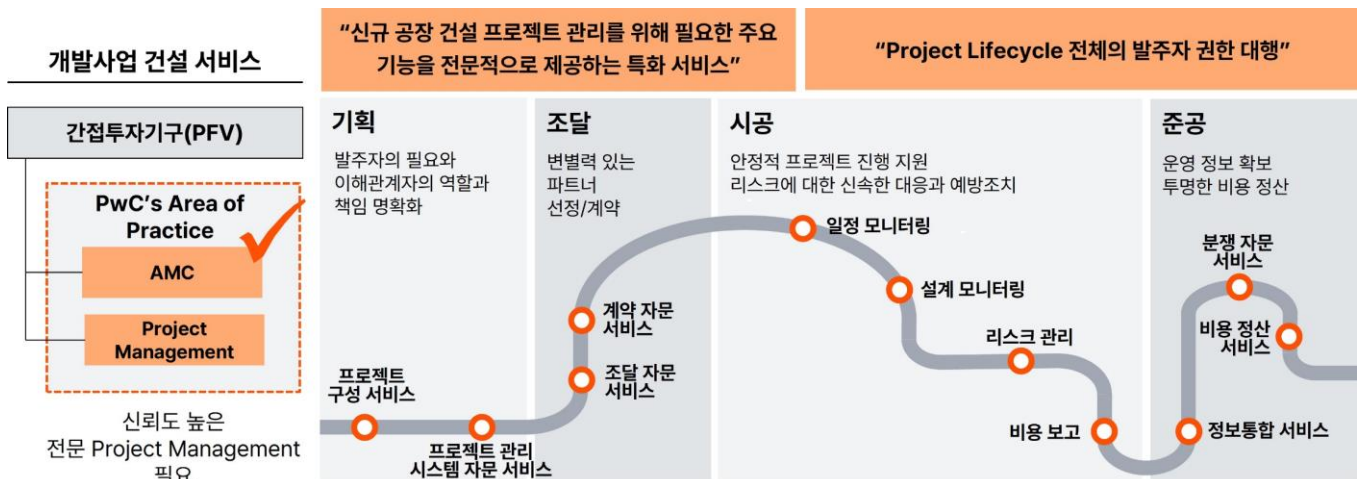
Deal 단계에서의 EPC DD

EPC DD 는 비용, 일정 및 품질 분석에 중점을 두어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작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성공적인 실행을 보장

Common	Cost & Contingency	Schedule	Qu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데이터 분석: 기존 데이터 및 문서 검토 • 고객 요청서 요구사항 분석: 고객 요청 및 요구사항 검토 • 작업 범위 정의: 고객 인터뷰를 통한 작업 및 EPC 작업 범위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임워크 적용: 비용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적용 (클래스 1~5) • 신규 EPC 견적 분석: EPC 견적 항목 상세 검토 • Contingency 비용 적정성 평가: Contingency 비용의 적절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통합: 판매자 및 EPC 계약자가 제공한 개별 일정을 평가하고 L3 수준의 세부 프로젝트 마스터 일정 구성 • 상호 의존성 점검: 가치 사슬 관점에서 EPC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인터페이스를 교차 점검 • 주요 허가 일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운전 경계 검토: 생산 및 공급, 시운전 경계 확인 • 시운전 일정 및 가정 검토: 계약자가 제공한 시운전 계획 가정을 검토하여 고객 요구사항과의 일치 여부 검토

건설 단계에서의 CPMS(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건설사업 기획 단계의 프로젝트 목표 설정, 시공 단계 원가 및 일정 관리, 시공 이후 비용 정산 및 데이터 이전까지 발주자의 핵심의사결정을 지원 (발주자 관점의 건설사업관리 Service)



Pre Construction 발주자 자문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프로젝트 목표/실행전략/참여자구성/조달 방안 수립

I 주요 서비스

- 프로젝트 구성 서비스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참여자 구성방안)
- 조달 및 계약자문 서비스 (수행방법에 따른 조달/계약 전략, 입찰관리, 계약서 작성 자문)
-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구축 자문 서비스 (효과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선정 및 구축 방안 자문)

Construction Smart Monitoring

프로젝트 예산, 일정, 목표 품질 준수 여부 Monitoring, 예상 Risk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지원

| 주요 서비스

- 비용 보고 (예산 관리 / 집행 비용 관리 / Contingency 관리)
- Risk 모니터링 (Risk 요인 List up / 발생가능성 및 중요도 분석 / Risk 현황 추적관리)
- 설계 모니터링 (설계일정 및 납품물 관리 / 주요 설계 의사결정 모니터링)
- 일정 모니터링 (Master Schedule 적정성 검증/Milestone 별 Gate Review 및 관리)

Post Construction Clean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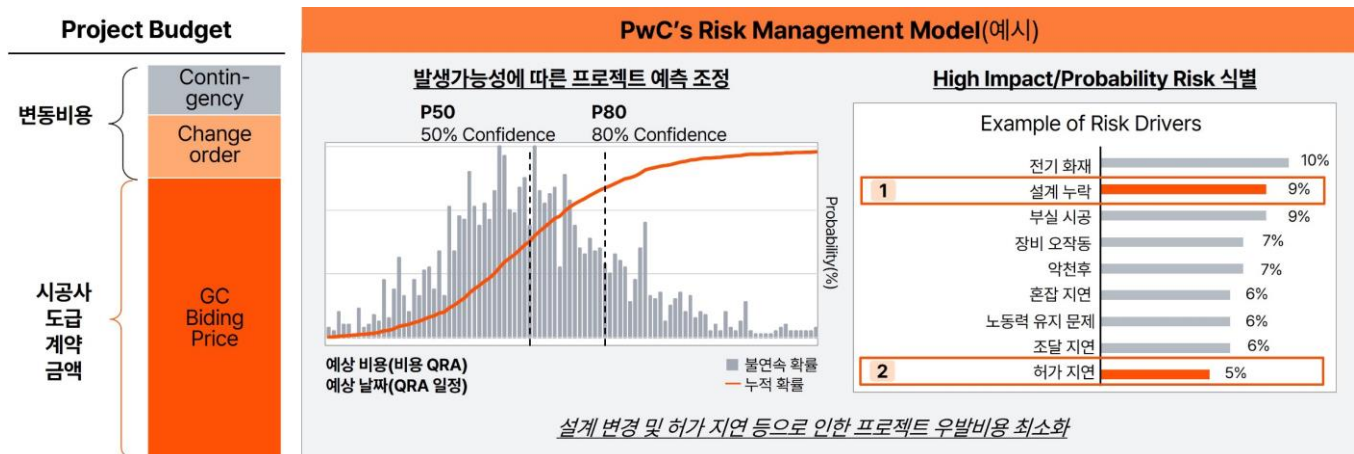
투명한 정산 진행과 분쟁 시 대응지원, 건설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로 정보 통합 구축 지원

| 주요 서비스

- 비용 정산 서비스 (투명한 정산 검증, 공사 원가 활용을 위한 변환 지원)
- 분쟁 지원 서비스 (분쟁 건을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대응 지원)
- 정보 통합 서비스 (운영단계 필요 정보의 이관 및 통합, 설계정보 관리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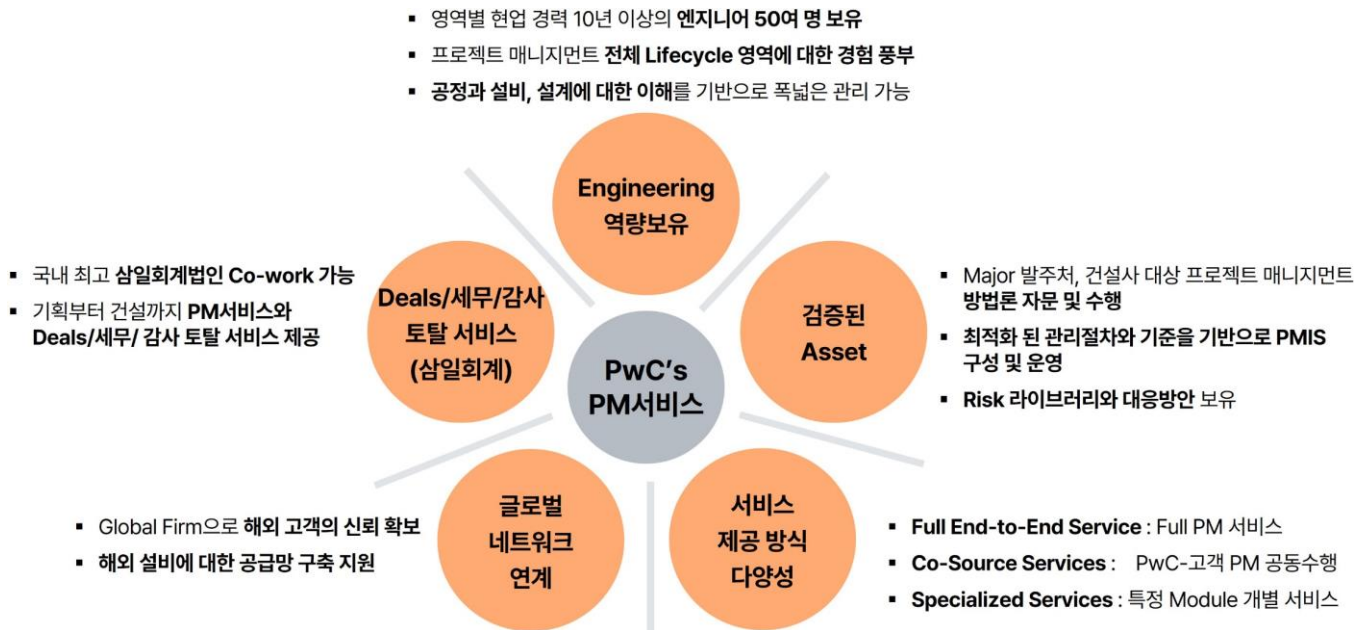
CPMS Tool

PwC CP&I (Capital Project & Infrastructure) Tool 기반 프로젝트 수행으로 발주처 보고 및 프로젝트 관리 효율성 극대화



PwC CPMS 특징점

PwC는 전문 인력, 고도화된 PMIS 역량 및 검증된 Asset을 통한 신뢰도 높은 Project Management Service 제공



Contact



민 경 필 Partner

Industry Solution
gyeong-pil.min@pwc.com

4. Deal Pipeline

Pipeline 현황

거래 규모	거래구조	Industrial	Infra	Consumer	TMT*	Bio	Capital / VC	합계
1,000 억 이상	Buy out	2 건	3 건	3 건	1 건	-	1 건	10 건
	투자유치	1 건	-	-	-	-	-	1 건
	소계	3 건	3 건	3 건	1 건	-	1 건	11 건
500 억 ~ 1,000 억	Buy out	4 건	3 건	4 건	3 건	-	-	14 건
	투자유치	2 건	-	-	1 건	1 건	-	4 건
	기업회생	1 건	1 건	-	-	1 건	-	3 건
	소계	7 건	4 건	4 건	4 건	2 건	-	21 건
500 억 미만	Buy out	34 건	26 건	34 건	17 건	1 건	1 건	113 건
	투자유치	11 건	3 건	10 건	7 건	8 건	-	39 건
	기업회생	18 건	3 건	3 건	-	-	-	24 건
	소계	63 건	32 건	47 건	24 건	9 건	1 건	176 건
미정	Buy out	-	-	1 건	-	-	-	1 건
	소계	-	-	1 건	-	-	-	1 건
합 계		73 건	39 건	55 건	29 건	11 건	2 건	209 건

*TMT: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mil PwC

조직도 소개



민 준 선

Deals Leader

joon-seon.min@pwc.com

PE Service Leader



이 정 훈

junghoon.lee@pwc.com

대기업 Service Leader



곽 윤 구

yun-goo.kwak@pwc.com

Middle Market Service Leader



이 도 신

do-shin.lee@pwc.com

금융 및 부동산 Service Leader



한 정 섭

jeong-seob.han@pwc.com

M&A 센터장



정 경 수

kyungsoo.jung@pwc.com

PE Accounting Partner



김 성 호

sung-ho.kim@pwc.com

PE Tax Partner



김 경 호

gyungho1.kim@pwc.com